

신·구도심 연결도로 '돈먹는 하마'

목포시, 잦은 설계변경...공기 1년 지연 공사비 46억여원 추가 소요 예산낭비

지난해 준공예정이었다던 목포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가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계획보다 1년 지연될 뻔 연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 변경과 공사 기간 지연에 따라 감리비용을 비롯해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비용이 늘어나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목포시 원도심과 신도심간 교통해소를 위해 길이 2.05km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이 공사는 총사업비 659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01년 착공, 지난해 12월 완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량 분석이 잘못돼 추가 공사가 늘어

나면서 암반 등 지형조사 추가, 항도여중 이교차점 연계 등 5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또 주공 3단지 아파트 지하도로 개설과 인근 주거지역 안전을 위한 응벽설치 공법 변경, 가로등 신형모델 교체 등도 공기 지연 사유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인근 주민들의 출·퇴근 통행로 확보, 재산상 피해 보상 등 16건의 주민 집단민원 가운데 청산아파트 주민들의 분진 피해 등 4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특히 감리비용 2~3억원과 공사비 인상분 7억5천만원 등 모두 4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총



목포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목포경찰서~버스터미널 간 도로 개설공사기 당초 보다 1년 연장된 연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터널 공사 현장.

공사비는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공사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400억원의 지방채를 일반회계로 발행해 추진했으며, 이에 따른 이자만도 예산에 16억원이 계상돼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오는 7월께 일부 구간을 개통하고 올해 안에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대흑산도 승도 해역에 대형 '수중 암초'

길이 2.1km, 너비 0.5km, 수심은 3.3m 불과 해양조사원, 인근 항해 선박에 주의 당부

대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대형 수중 암초가 확인돼 항해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 해양조사원은 최근 대흑산도 북방 4마일(7.4km) 지점 해상에 위치한 승도 좌측에 있는 대형 수중 암초의 규모와 수심을 측정했다.

수중 암초 지역은 지난 83년도 조사 당시 수심이 9.4m였으나 이번 정밀 조사 결과 길이 2.1km, 너비 0.5km로 가장 낮은 곳의 수심은 3.3m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국립 해양조사원은 다중 빔 음향측심기 등 첨단 해양조사장비를 이용해 수중 암초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파악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특히 가장 낮은 곳의 수심이 3.3m에 불과해 선박 안전 운항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국립 해양조사원은 해도 개정을 통해 수중 암초 위치를 신속히 해운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치 유산균으로 요구르트 개발

목포대 식품공학과

김치 유산균을 이용한 두유 요구르트와 아이스크림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창업 동아리

인 'Jac & B'는 식물성 콩을 원료로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에 다시마 추출액 등을 첨가한 고기능성 두유 요구르트와 아이스크림 개발에 성공했다.

목포대 김인철 교수는 "두유 요구르트는 일반 우유나 요구르트에 비

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폴레스테롤이 없어 유산균에 의한 정장작용만을 내세우는 일반 요구르트와 달리 고부가가치의 기능성을 더한 건강 기능성 식품이다"고 밝혔다.

두유 요구르트는 지난 달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2007 전통식품 첨단화 심포지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제2회 노인건강대축제 10월 목포서 열린다

제 2회 전국 노인건강대축제가 오는 10월 목포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전남도·목포시가 공동 주최하는 노인건강대축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유달경기장 등 목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노인건강대축제는 건강체조와 댄스스포츠, 게이트볼 등 3개 분야 13개 종목에 걸쳐 치러지며 노인해변가요제 등 각종 부대행사도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각 시·도 예선을 통과한 선수단 3천여명과 3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무안군 도로변에 다년생 화초인 금계국이 만개했다. 무안군은 올해 주요 도로변 150km에 금계국과 코스모스 등 다양한 화초로 꽃길을 조성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변화하는 교정행정 정책'

목포교도소 간담회 개최

목포교도소(소장 송방식)는 지난 29일 목포 상그리아 비치 호텔에서 목포지역 교정인사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송성신 법무부 교정국장은 법무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신뢰의 그물짜기 범국민운동' 등 새롭게 변화하는 교정행정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노란 금계국 물결 장관

진도 철마장학회 장학금 지급 올 대학 신입생등 64명에 3,100만원

의 밝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장학금이 미래를 위한 힘찬 도약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1년 진도군 산하 공직자들이 봉급의 일정액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 철마장학회는 현재 7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철마장학회는 지금까지 공직자 자녀와 예체능 특기생 949명에게 4억1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목포시의료원 '우수 의료기관'

보건부, 전국 118곳 평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260병상 미만 중소규모 종합병원 1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평가 결과, 목포시의료원이 상위 25% 이내(30개 의료기관)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목포시의료원은 ▲환자의 질관리 ▲진료체계 ▲안전관리 등 5개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광주·전남평가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목포시의료원은 또 지역거점 병원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전국지방의료원 34곳과 6개 적십자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평가에서도 7위를 차지했다.

한편 목포시의료원은 지난 2001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진도 가계해수욕장 손님맞이 '이상 무'

내달 2일 개장...요트 무료체험 등 이벤트 풍성

진도군이 오는 6월2일 고군면 가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도군은 올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옴에 따라 가계 해수욕장을 기점으로 관내 해수욕장을 예년에 비해 한달 가량 앞당겨 개장한다.

군은 최근 진도군청에서 목포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열고 조기 개장에 따른 행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샤워장과 급수대의 정비를

조기에 마무리 하고 피서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숙박이 가능한 몽골 텐트 대여도 늘릴 계획이다.

한편 2일 오후 2시부터 가계 해수욕장 개장을 기념하는 퓨전 국악공연과 비비오 댄스, 비치 발리볼 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또한 레저보트 투어(카누), 요트 무료체험과 함께 해상보트 삼색연막탄 퍼레이드, 윈드서핑 시연회 등도 펼쳐진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光 州 日 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수 653-8444 (686-8584)	목포 276-9200	나주시 332-5544
광양 792-8111	무안 452-8535	나주군 332-7764
보성 853-9700	해남 534-5151	화순 374-4423
순천 746-8111	완도 554-6677	장성 392-7000
고흥 833-9900	영광 351-0055	담양 383-8111
녹동 842-2121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구례 783-8111	진도 543-0100	장흥 863-8822
곡성 362-8111	강진 433-8355	광산 944-0444
	함평 324-8111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김수희 5월 31일 6월 1일

부킹천국 100%

정통 성인나이트 만을 고집하는
광주 상무 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